

산문정신과 시대정신의 치열한 만남

全集 펴내는 전후문학의 대표적 작가 李浩哲씨

“한 나라 문학사의 도약은 이러한 천재성에 의해서 겨우 가능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되어도 좋을라 믿는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소설사는 이 점에서 李浩哲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金允植)

“이 역사의 혹독한 가치관의 풍화작용 속에서 가장 견고하게 남은 작품을 우리는 李浩哲에게서 찾을 수 있다.” (任軒永)

지나친 극찬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작가 이호철씨(57)에 대한 문학평론가들의 평은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50년대 작가들 가운데 험난한 역사적 굴곡을 정면에서 겪어내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적 작품을 발표해오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되는 작가 중의 한사람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지적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가기도 한다. 그는 전후문학, 그중에서도 소설 부문의 믿음직한 代父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왔으며 후배문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얻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제 그가 삼십오년에 달하는 문단생활을 정리하는 전집을 펴내 평단과 독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통일지향적 실학민 의식 담아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쓴 작품을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친분이 있는 출판사로부터 제의가 와서 이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

별한 감회보다는 지난 시대 내가 쓴 글이 과연 제 몫을 해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계연구소 출판국(대표 손세일)에서 발간되는 이 전집은 모두 12권으로 완결될 예정인

**전후문학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진작가 이호철씨가
삼십오년에 달하는 작품세계를 정리,
전집을 펴낸다.
그는 항상 시대의 최전선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오면서도
견고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데, 그중 ① 단편집 「판문점」 ② 단편·포스트 집 「빈 골짜기」 ③ 중편집 「무너졌던 소리」 등 3권이 최근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한달에 한권씩 꾸준히 출간되리라고 한다. ④권에서 ⑩권까지는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그 겨울의 긴 계곡」 「남풍북풍」과 같은 주요 장편이 수록되고 ⑪ ⑫권은 「역사적 현실과 문학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이다.

그의 문학은 실학민이라는 그가 처한 숙명적인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가령 서북청년회 출신의 동세대작가 선우휘처럼 반공제일주의적 냉전이념을 신봉하지 않고 통일지향적 진보적 시각을 지금까지 흐

트리지 않고 고수해오고 있다. 관념 과잉의 50년대 소설의 태반이이미 그 시효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이 아직도 현실감을 잃지 않고 독자에게 육박해오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라고 하겠다. 분단시대의 다양다기한 삶의 양태와 저변을 그는 차분하게 밀착 촬영하여 그 핵심을 낚아 올림으로써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가장 예민한 성장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군사정권과 여러차례 ‘몸싸움’

함경남도 원산시에서 태어난 그가 역사의 격류에 휩쓸리게 된 것은 6·25의 발발로 인해서였다. 원산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문제로 고민하던 그는 갑작스레 인민군으로 동원됨으로써 현실로부터 ‘차출’당한다. 전쟁터에서 혹은 포로가 되어 몇번이나 생명의 고비를 넘기던 그는 중공군이 참전하자 단신 월남, 부산항에서 부두노동을 하거나 미군부대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밀바다 삶을 체험한다. 그런 와중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은 치열하게 타올라 53년 황순원씨의 추천으로 문단에 발을 던지게 된다. 전쟁과 피난시절의 체험을 담은 단편 「탈향」과 「나상」이 추천작들로서, 미숙한대로 그의 소설세계의 특성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후 그는 「판문점」



전후 리얼리즘 문학의 파수꾼 역할을 한 이호철씨.

으로 제7회 현대문학상을 수상(61년)하고, 「닿아지는 살들」로 동인문학상을 수상(62년)하는 등 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특히 그는 최인훈씨와 더불어 50년대 문학과 60년대 문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성과 기법에 있어서 각각 상이한 노선을 걸어간 이 두 작가의 족적은 그야말로 전후문학의 중요한 두 지류를 상징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즉 그는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작품의 미학적 성취도를 중시하는 고전적 작가의 ‘초상’에서 일탈하여 시대현실의 한복판에 뛰어들

*크리슈나무르티 원색사진 60매 동사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800 원



명상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

남의얘기는 이제 그만!

「우리 자신 속의 독재자」

크리슈나무르티의 마지막 메시지

눈만 뜨면 비판의 시각을 밖으로만 향하는
우리 시대의 집단정신병!
남의 얘기를 정신없이 나열하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만 풀어가는
독선적 자세는 이제 그만!

●박상준 옮김

우리는 여전히
진인하고 경쟁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삶과 문학의 합일을 꿈꾸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가 60년대 이후 강권통치의 발톱을 드러낸 군사정권과 여러차례 '몸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문학의 역할을 내적 수렴보다는 외적 확산을 더 중시하는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인 동시에 특유의 '다혈질'적인 기질 탓도 있을 것이다. 통혁당사건, '민수협'시국성명, 문인간첩단사건, 김대중내란 음모사건 등 우리 역사가 몸살을 앓을 때마다 그는 '현장범'으로 소환·투옥당하는 경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단시대에 소설이 서있어야만 될 착지점을 찾아내기에 이른다.

일관된 주제는 '화해'와 '인간애'

“소설이란 삶의 실체와 부딪치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때 그때 그 시대의 알맹이를 붙잡고자 해왔습니다. 내 작품을 읽어보면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론이나 지나온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녹아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문체는 급박하고 날카롭기보다는 완만하면서도 유장한 흐름을 보여준다. 감각적인 번쩍임이 없는 대신 진중하게 대상에 접근해 들어가는 은근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실형민의 애환을 바라볼 때에는 연민의 물기가 어리지만, 우리시대 도시민의 허위의식과 속물근성을 고발할 때에는 여지없이 신랄해진다. 그의 아름다운 단편 「큰산」은 이러한 비판정신이 서정성과 함께 어울려 어떤 신

화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된 세계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에 일관되게 관통해 있는 것이 '화해'와 '인간애'라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해 있는 민족분단 문제에서나 문학의 본령이라는 면에서나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맞아 너무 들떠있는 것 같으면서 “젊은 작가들이 격동의 시대에 격동 그 자체에 휘말려 쓰면 나중에 그 작품은 곧 낡아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소설을 '속으로 단단히 다져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잡지에 장편 「네겟 두른 족속들」과 「門」을 연재하고 있으며, 전집을 펴내는 것과는 별도로 앞으로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주안을 둘 소설을 꾸준히 쓸 예정으로 있다. 후배소설가 박태순씨가 평했듯이 그는 지금까지 「장군의 문학」을 해온 것이 아니라 「병사의 문학」을 해왔고 우리 시대의 환부에 대한 엄숙한 증언을 계속해 왔다. 고난을 마다 않는 열정이야말로 오늘의 '이호철 문학'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격동의 80년대가 저무는 이때 전집을 발간함으로써 새삼스럽게 출발선상에 다시 섰다. “남북이 서로 상대를 포용하고 인화화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도 즐기게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의례적인 수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지나온 삶의 '체적' 그리고 '숙명'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 때문일 것이다.

—남진우 기자

인터뷰

“출판사업엔 정년퇴직이 없죠”

88년도 '서울시문화상' 받은 高文社 대표 白允基씨

“남들이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책을 만들어온 노력을 인정해준 셈이랄까요. 다른 출판사에서선 손댈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의 책을 만든다는데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젠 사명감에서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지난해 연말, 88년도 '서울시 문화상'(출판 부문)을 수상한 高文社 白允基(65)사장의 뒤늦은 소감은 담담하면서도 분명했다. 고문사는 1962년 설립 때부터 줄곧 의·약학 분야의 책만을 고집해온 전문출판사. 「의학약학약어사전」 「국소인체해부도」 「구강점막질환」 등 그동안 만든 200종 이상의 책들이 모두 우리나라 의학과 보건계의 학문적 발전에 일익을 했다고 백운기사장은 자부한다.

“초창기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독자층도 한정돼 있는데다, 제작과정에서 다른 일반물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요. 노력에 비해 수익성이 빈약했죠. 하지만 전문분야를 출판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차츰 자리를 다져갔지요.”

한때 한방의학에 몰입, 직접 번역한 책도 많았다. 한 분야만 계속 출판하다 보니 이제 의학지식도 수준급이어서 고문사의 모든 책은 일단 백사장의 눈을 거쳐야 OK된다고.

지금까지 만든 책들 가운데 백사장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의학용어사전」(70)과 「약학사전」(69). 전문용어와 까다로운 개념이 많은 의·약학 분야 연구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전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갖는다고. 요즘에는 국내 저술 치·의과대학 교과서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고, 「영한의학대사전」은 올해 꼭



원성해야 할 중요한 작업으로 꼽고 있다. 또 미개척 분야인 미생물, 생화학관계 서적의 개발도 기획중이다.

“남들 같으면 정년퇴임할 나이에 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전문분야에서 선도적인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문출판사로서의 의무이자 제 자신의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白사장은 대구사범 출신으로 59년 울진중학 교사를 사직, 博英社 편집부에 입사한 것이 출판업에 투신한 계기가 됐다. 그동안 「피부병도감」(72), 「산과학」(75) 등이 한국일보 한국출판문화상 제작부문상을 받았고, 「임상검사법제요」(85)로 과학기술도서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출협 및 출판협동조합 이사, 과학기술도서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김지원 기자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 출판**
- 단행본 ○ 전집류 ○ 잡지
 - 교양도서 ○ 참고서 ○ 사전류
 - 교과서
- 신문**
-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월간신문
- 잡지**
- 교양지 ○ 전문지 ○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 사보

● 취업포도실 : 671-8317

미올업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